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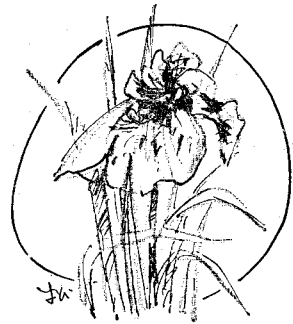
제 9 회

전국 현상모집 입상 작문

84 년도

— 발명사상양양 보급을 위한 —

- ... 「월간 발명특허」 편집실에서는 제9회 전국 초·중학생...
- ...작문·만화 현상모집 수상작품중 최우수상·우수상·가...
- ...작상 수상작품을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 ... 어린이들이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비...
- ...록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생각을 더해가고 문제를 발...
- ...견해낸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 하나 읽어 갈때 우리의 앞...
- ...날은 펄 밝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 ...것입니다. <편집자주>



■ 국민학생부 ■

가작상 <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상>

편리한 생활을 위해

노 정 필

전남 고흥국민학교 제6학년

요즈음 어머니는 생선 찌개를 하실 때 마다 어려움을 겪으신다.

칼로 생선 비늘을 벗기실 때 손을 베시곤 하신다. 이것을 본 나는 생선 비늘을 쉽게 벗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보고자 하여 간단한 발명품이 나와 있는 잡지를 보니 생선 비늘을 쉽게 벗길 수 있는 기구가 나와 있었다.

그것은 반듯한 나무조각인데 가로 10cm 세로 20cm로 되어 있다. 여기다가 병뚜껑을 많이 모아서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말려 놓는다. 왜냐하면 햇볕에 말리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병균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뚜껑이 마르면 나무조각에 붙이는데 병 뚜껑을 나무에 붙일 때는 본드는 금물이고 못을 병

뚜껑 말릴때 같이 말려 이 못으로 병 뚜껑을 나무조각에 질서 있게 붙인다.

이렇게 되면 생선 비늘을 편리하게 벗길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나는 즉시 책에 적혀 있는대로 만들어서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기뻐하시며 나를 칭찬해 주셨다.

이 기구가 생선 비늘 벗길때 편리하게 쓰였다.

그 후 몇 주일이 지났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께서 생선 비늘을 벗기시다가 손을 베셨다.

나는 어머니께서 왜 손을 베셨는지 궁금하여 여쭙어 보았다니 어머니께서는 생선의 비늘을 벗기실 때 손이 미끄러져

병 뚜껑의 뾰족한 부분에 손을 다치셨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생선 비늘 벗기는 기구를 개조하여야 겠다고 생각 하였다.

일주일 이상을 머리를 짜고 또 짜서 겨우 개조한 것이 나무를 이용하여 말발굽 모양으로 잡기 편리하고 손에서 잘 떨어지지 않게 고무로 붙인 손잡이었다.

이것은 생선 비늘 벗기는 기구에 손잡이를 붙여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새로 개조한 생선 비늘 벗기는 기구를 보시고 선 나를 매우 칭찬

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이 만든것을 보고 만든 것보다 자기 스스로가 연구해서 만든 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제 부턴 어머니는 생선 비늘을 벗기실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었고 나도 내가 만든 발명품이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쓰이게 되니 무엇인가 뿌듯한 마음을 가질수가 있어서 기뻐다.

앞으로도 이 발명품 이외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보아야 겠다고 다짐해 본다. *

하시는 곳을 찾아갑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측은하여 그때마다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야 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자꾸만 떨어지는 애인의 리본에서 힌트를 얻어 안전핀을 만든 윌터헌트 처럼 괴로울때나 지칠때면 콩귀를 생각하시며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어머니 곁에서 평범하게 받아들이던 사실에서 뜻밖의 반짝이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느 아기든지 잠깐 동안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풀어 헤쳐주는 방법은 습진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기저귀는 우유를 먹기 전에 봐주고 우유를 먹인후에도 봐주는데 요즘은 심장도 튼튼해지고 머리모양도 가름하니 예뻐지라고 아기를 얹어 키우기 때문에 기저귀는 앞쪽을 두텁게 해서 채우기 전에 아기분을 가볍게 발라줍니다.

아기분을 많이 발라주면 오히려 진물르는 일이 많아요. 고무마 녹말이 아기분의 원료로 되어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드물 거예요.

감자녹말을 아기분 대신 가볍게 발라주니 땀띠 습진 태열 등이 깨끗이 낫는 약효가 있습니다.

아무리 매스컴에서 모유가 우유보다 아기에게 좋다고해도 우유를 먹여서 키우는 산모가 대부분이예요.

중학생부

가작상<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상>

신생아 관찰

황 혜 미

서울 구산중학교 제1학년

미군부대를 다니시다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그전부터도 어머니는 1년에 4번(녀달) 정도 장남만은 내가 벌여 공부를 시킬 뜻이 있다시며 오빠의 등록금을 낼때쯤이면 동생과 나는 밥을 짓고 빨래 청소등 집안일을 돕고 어머니는 일을 나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몸져 누우신지 1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어

머니는 하루로 빼놓지 않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부반장을 몇번 한적이 있는 우리 혜미만은 꼭 대학을 보내시겠다면서 등록금은 내가 해결테니 지금부터 어머니가 하는 일을 유심히 봐뒀 비교적 실증이 안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한달이면 몇번씩이나 메모지를 들고 어머니가 일을

젖을 만나오게 하려면 홍삼 가루를 식후에 한수저씩 약처럼 먹습니다. 또 옛기름을 물에 30분쯤 담가 놔다가 걸러서 한컵씩 하루 세번 3일 마시니까 젖이 삭아 버려요.

이때 옛기름물을 진하게 마시는게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옛기름물은 한꺼번에 꼭 마시야지 마시다가 입을 떼면 구역질이나 더이상 마시지를 못해요.

올해부터 우리나라 국립 중앙의료원에서도 특수한 아기들을 위하여 흘러내리는 젖을 모아 모유은행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모유는 냉장고에서 24시간 보관 할 수 있으니 아기가 젖을 빨지 못할 때에는 유축기로 젖을 짜서 우유병에 담아 초유를 먹입니다.

초유를 먹이면 설사를 하는데 신생아의 소화기를 깨끗이 해 주는 것이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출산후에 흔히 있는 변비에 방에는 식전에 당근쥬스를 마시든가 땅콩이나 호도를 먹으면 좋습니다.

젖꼭지 구멍을 좀더 크게 뚫으려면 손을 베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뾰족한 바늘끝에 불을 달구 젖꼭지 구멍을 잠깐 동안만 찢어줍니다.

젖꼭지를 씻을때 끓은 소금을 뿌려 비벼서 빨면 우유의 지방막이 깨끗이 씻겨나가 젖꼭지를 더욱 오래 쓸수 있습니다

다.

아기가 먹은 젖의 량을 알려면, 젖을 먹이기 전에 아기를 안고서 체중을 달고 젖을 먹인 후에 다시 아기를 안고 체중을 달아 처음의 몸무게와 그후의 몸무게의 차가 곧 아기가 먹은 젖의 량이 됩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입구에 위치한 경남 아파트엔 어떻게나 개미가 들끓는지 보리차를 끓여서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하는데 놀랍게도 우유를 타다보면 벌써 우유통에 거짓말같이 개미가 들어가 있는데 개미통로에 소금을 조금씩 뿌려 놓았더니 며칠후에 없어졌어요.

방에 습도조절은 가습기를 쓰지말고 낮에는 기저귀를 세탁기에 탈수하지 말고 손으로 짜서 방에 넣니다.

가습기를 켜면 산모가 팔 다리가 저리다는 분이 많았어요.

콧속에 딱지는 면봉에 바셀린을 묻혀 부드럽게 닦아주듯 떼내어 주는 것이 좋는데 코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기는 딱꼭질을 잘하는데 보리차를 먹이거나 심하지 않을땐 장 운동에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유통 만드는 재료를 이용해서 주사기식으로 유축기를 만들면 같은 시간에 힘안들이고 많은 량의 젖을 짜 수 있어 좋을텐데, 산모들이 유축기 대신통치 않아 손으로 젖을 눌러 짜서 젖이 늘어 진다거나 멍이

시퍼렇게 들어 안타까와 하는 일은 이젠 없어져야 겠어요.

겨울에 위풍이 센 방에서 아기를 재울때는 위풍을 막기 위하여 모기장을 치고 잠을 재웁니다.

찬바람과의 공기저항이 생겨 모기장을 치면 얇은 이불을 하나 덮은 정도의 보온이 됩니다.

할머니가 제신력은 신생아때 귀를 만져주라는 부탁을 자주 들으십니다. 솜을 가늘고 길게 말아 귀가 말리는 곳에 끼워두면 빠지지 않아요. 귀를 매일 만져주다 보면 성장후 당나귀 귀처럼 커진 귀를 볼 수 있는데 예쁜귀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오히려 귀가 말리는 곳과 귀뒤에 솜을 가늘게 말은 것을 끼우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에요.

직업이 무엇이든지 나이가 몇살이 든지 그들에게 배우는 점은 많아요.

그들만이 경험한 세계를 듣는 것처럼 신나는 일은 없거든요. 소중히 키워야할 아기에 대해 모든 것을 메모해 두는 일은 낭비가 없고 생활을 과학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아들딸 구별말고 알맞게 남아 자신을 갖고 나름대로 아기를 보다 건강하게 기르면 그것이 가장 좋은 육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